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유의 주재(찬48/새32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인권 장로 2부/김정태 장로 3부/김원용 집사 4부/주 안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한 없는 주 은혜(이정진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시편(Ps.) 119:1-8..... Altogether **다같이**
4부/고린도전서(1 Cor.) 3:18-23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Daewon Moon **문대원 목사**

기독교 규범은 인격적이다

4부..... Rev. Daewon Moon **문대원 목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부/주 없이 살 수 없네(찬415/새292장) 2, 3부/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큐티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Get Divorced... Do Quiet Tim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요즘 3-40년 같이 산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흔한 성격차이나, 외도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영역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이혼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남편은 하루 세끼를 챙겨 달라고 합니다. 평생 일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하면서 마땅히 집에서 대접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하루 세끼라고 하는 엄청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 평생 하던 가사 일에 남편의 하루 세끼를 챙기는 것은 노역으로 느껴질 정도로 마치 그동안 일궈온 정원에 트럭이 밀고 들어와 일순간 망가뜨리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부가 같이 3-40년을 살았어도 서로의 고유한 영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대부분 부부가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부부가 각각 타고 다니던 차를 한대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혼 사유로 표면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행동 반경이 똑같아지면서 각자의 생활 영역이 침범 당했다 느끼는 것이고, 젊었을 때는 맞춰 간다고 할 수 있지만, 나이드는 지금은 더이상 맞출 의미를 느끼지 못해 남은 선택은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화장실을 가면 한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생리적 이유도 있겠지만 나만의 영역을 누리려는 심리적인 이유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사이라도 서로의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고, 지켜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의입니다. 무엇보다도 비켜주어야 할 영역은 기도하며 큐티하는 바운더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바운더리를 '틈'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하되"(고전 7:5) 예수님도 그 분주한 스케줄에도 그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틈'이 있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기로 합시다. 남을 향한 배려를 밥 먹듯 하기로 합시다. 때론 너무 가까워 부끄럽고 당황할 수 있는데, 모르는 체 하는 예의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가까운 친구와 오래오래 같이 지내는 지혜이며, 무엇보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부부가 같이 해로하는 비밀입니다.

Do you know what the biggest reason is for couples who have lived together for 30 to 40 years to get divorced? It is not the common reasons of personality differences or infidelity. It is said that they decide to divorce because they cannot adapt to changes in their own life. After retirement, husbands often demand to be served three meals a day. A sense of compensation kicks in, making them believe they have a well-deserved right to be treated well at home after working their entire lives, leading them to assert their right to demand three meals a day. However, from the wife's perspective, preparing three meals a day for her husband on top of the housework she has done her whole life feels like intense labor; it feels as though a truck has driven into the garden she has cultivated all this time, destroying it in an instant. In the end, this is because they have failed to understand that even though the couple lived together for 30 to 40 years, they each had their own unique domains.

It is said that after retirement, most couples downsize from two cars to one to save on living expenses. However, this is also surfacing as a reason for divorce. As their radius of activity becomes identical, they feel that their individual life boundaries are being invaded. While they might have tried to adapt and compromise when they were young, now that they are older, they no longer see the point in doing so, leaving divorce as the remaining option.

It is said that the reason a husband or wife goes to the bathroom and doesn't come out for an hour is to secure their own personal time. While there may be physiological reasons, the psychological reason—the desire to enjoy one's own time—might be greater. No matter how close a married couple is, respecting and protecting each other's boundaries is an essential courtesy. Above all, the domain that must be cleared and respected is the boundary for praying and doing QT. The Bible refers to this boundary as a 'gap'. "Do not deprive each other except perhaps by mutual consent for a time, so that you may devote yourselves to prayer..."(1 Cor 7:5). Even Jesus, despite his busy schedule, had a 'gap' where he was undisturbed by anyone.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Jesus got up,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a solitary place, where he prayed."(Mk 1:35).

Let us agree to respect each other's domains. Let us practice consideration for others as naturally as we eat meals. Sometimes, being too close can make things awkward or embarrassing, so let us also maintain the courtesy of pretending not to notice. This is the wisdom for staying together with a close friend for a very long time, and above all, it is the secret for a married couple to grow old together until their black hair turns as white as scallion roots.

기독교 규범은 인격적이다

시편 119:1-8

게놈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인체의 복잡성을 연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콜린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심 없는 이타주의는 진화론자에게 가장 큰 과제다.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내적인 목소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동기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절대적 규범과 기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와 같이, 현대인들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내 기준대로 살 테니까 제발 당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말라"고 외치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이 사회는 무질서(anomie)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1. 이 사회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게임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2.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복과 유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범과 권위에 따르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시 119:1, 6-7)

3.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규범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새겨진 규범(일반계시)이고 둘째는 말씀에 새겨진 규범(특별계시)입니다. 본래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일반계시를 왜곡하여 거짓과 부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인간은 어떻게 그분의 규범을 알 수 있을까요? (시 119:105, 딤후 3:16-17)

4. 기독교의 규범은 인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딱딱한 율법 규정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궁극적인 규범을 율법의 조항으로 여기는 경우와 실제 삶의 방식(lifestyle)으로 여기는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고후 3:6-8, 롬 12:1-2)

적용하기



■ 적용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찬415/새292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선교 간증
뉴멕시코

복음은 들을 때마다 새롭다

뉴멕시코는 조금 다른 선교였습니다. 얼핏 다 같은 '선교'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나바호 주민들에게 복음을 '나의' 언어인 영어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언어, 하나님이 제 삶에 어떤 존재이신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 영어 말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7살 나바호 친구 리암과 '일대일 복음 전하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중을 못 할 것 같아 보이는 아이가 제가 두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압전하게 앉았고, 시작 기도를 마친 뒤에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기도해 줄래." 그 말을 들은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Dear God..."으로 시작하는 순수한 리암의 고백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들이 너무 정결하고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친 뒤 저는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리암은 끄덕이며 "He's in my heart. He's my protector."라고 대답했

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두 번째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말씀이 하나 제 마음에 조명되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창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이들의 마음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단하게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식은 쌓여 가고 섬기고는 있지만, '내 앞에 앉아 있는 리암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복합적인 감정을 마주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고 복음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리암과 대화하며, 처음 계획과는 반대로 제가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

다. 제 마음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내 마음의 본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누군가를 향한 영적인 가르침과 복음의 복습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하늘(예수)



사역 소개
신학강좌

말씀 안에서 하나되는 시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세워진 저희 신학강좌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리를 배우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돕는 작은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귀한 강사님들을 정중히 모시는 일부터 성도님들이 오시는 길을 친절히 안내하고, 경건한 예배의 자리를 섬기기까지 담당 부서 간의 긴밀한 소통과 정보기도로 맡겨진 일들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찬 교재 제작과 강좌를 알리는 배너 디자인에도 마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으로 찾아오실 성도님들을 깊이 생각하며 따뜻한 식사와 간식을 마련하고, 정성껏 식탁을 차려 현대의 자리를 준비합니다. 작은 일 하

나하나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함께 찾고자 시작된 베델교회의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가 여러 성도님들의 따뜻한 기대와 기도 속에서 어느덧 뜻깊은 제1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조명하다'라는 주제로, 깊은 학문과 따뜻한 영성을 겸비하신 귀한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본질적인 삶의 질문들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시선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흔들리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단단히 세워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좌가 머리뿐만 아니라 지식에 그치지 않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적시는 시원한 생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긴 일과를 마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실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알찬 강의와 더불어 마음을 여는 다양한 특별순서,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식사와 간식도 풍성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마음이 지친 믿음의 지인들을 따뜻하게 초청하여 우리 베델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삶의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움과 은혜가 아름답게 만나는 이 거룩한 자리에 베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황인수 집사

Come&See 50 특집 7

베델의 여정

또다른 50년이 기대됩니다



육아와 가사, 그리고 직장생활까지 1인 3역으로 심신이 지쳐 너털너털해질 즈음에 베델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다가온 수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눈물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디 나뿐이랴. 그 무렵은 많은 이들이 달랑 가방 두 개 들고 시작한 이민생활과 동시에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위기, 관계 속의 갈등을 함께 견뎌야 하는 힘든 시기였고, 많은 이들이 손 목사님의 위로의 설교를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러한 어려움들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을 무렵, 우리는 손목사님과의 헤어짐을 준비해야 했었고 김한요 목사님과의 만남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손목사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에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었다면, 김한요 목

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이해도, 감사도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한 번의 헤어짐과 만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지미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목사님이 되어 주실 분과의 만남이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한창 나이에 베델의 우산 속으로 비를 피하려 들어오셨던 많은 분들 중 더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양로원에서, 또 다른 분들은 교회 코트야드 한켠에서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누십니다. 그렇게 베델의 지난 50년을 책임지고 지켜왔던 분들이 계시듯이, 앞으로의 50년을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가 뜨겁게 성장하고 있어 이후의 50년이 기대됩니다.

우리 때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부지런하며 따뜻한 젊은이들을 만날 때 너무 대견스럽고 부러우면서도 감동이 됩니다.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했고, 팬데믹 때에도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며 주렁주렁 열매를 내어 주던 주차장 앞 대추나무처럼 수많은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에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갈 우리 베델의 청년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100주년까지 교회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델이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 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 33:29)

김성희 권사

훈련 간증

BAM

일터를 선교지로 바라보다



베델동산에 함께 참여한 집사님의 권면으로 BAM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베델동산을 다녀온 후 저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부담스럽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교제의 폭을 넓히는 교육 정도로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비즈니스 인맥을 넓히고 싶다는 다소 세속적인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진행될수록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BAM은 단순한 비즈니스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정 중 가장 큰 은혜는 일과 신앙을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저의 시각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역할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BAM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뿐 아니라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장과 사업의 자리 역시 선교의 현장임을 깨닫게 되었고,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저를 사용하기 위해 지금도 연단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경쟁과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삶과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성공보다 섬김을,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를 선교의 현장으로 여기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정대현 집사

교회학교
AWANA

주저함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의 사역의 자리가 어디 일까 기도하던 중, 문득 '어와나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와나 부서로 부르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와나 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 모두가 함께 어와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이를 어와나에 보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킨더가 된 아이에게 밤늦게까지 하는 프로그램이고, 다음 날 한글학교까지 다녀야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와나 안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한글학교만 보내려고 한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와나 사역으로 부르시고, 아이가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당

연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이유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었던 생각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해 보니 아이는 어와나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매주 어와나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게임과 말씀을 통해 몸과 마음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와나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오히려 믿음 없는 판단이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말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예전의 저처럼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어와나를 망설이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먼저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와나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이지 않

는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와나를 통해 저희 가정 모두를 세워 가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헌신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와나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려 평생의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조한나 집사



성례
유아 세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안녕하세요. 예수 청년부를 섬기는 공병주 목사 가정입니다. 베델에 몸담은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결음마다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신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시우를 품에 안을 때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이 작고 귀한 생명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저희 부부 또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라는 마음을 담아 '시우(時佑)'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시우가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주 목사/김상희 사모



먼저 지난 20개월간 서우를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터울이 얼마나지 않는 첫째 아이도 있기에 서우를 양육하는 과정이 쉽지않았지만, 하나님께 아이들을 내려놓았을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서우가 영아부를 거쳐 현재 유아부에서 나와 함께 매주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저희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아기학교를 통하여 매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서우가 조금씩 더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훗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김민국/김보람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경: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목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정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훈란

사역광고

AWANA 2026-27년 등록



AWANA는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라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유래했으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돕는 성경 중심의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AWANA는 다음의 3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아이들을 균형 있게 양육합니다.

- ① Handbook Time(교재와 암송): 교재 학습과 성경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 ② Council Time(예배):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 ③ Game Time(게임): 신나는 게임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어릴 적 AWANA를 경험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의 뿌리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말씀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 ▶ 등록 기간: 6월 28일(주일)-7월 26일(주일)
- ▶ 프로그램 기간: 기율학기: 2026년 9월 18일(금)-11월 20일(금), 봄학기: 2027년 1월 15일(금)-5월 14일(금)
- ▶ 날짜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7-9시
- ▶ 장소: 베델교회 체육관
- ▶ 대상: K-5학년
- ▶ 회비: \$65
- ▶ 등록 방법: QR code
- ▶ 문의: 이근제 집사 (716)907-1181, 카카오톡: Keunjei1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월)	7/5: ①부-다무라고조	②부-김태원	③부-김종곤	④부-임지은
	7/12: ①부-김재호	②부-김종학	③부-김종현	④부-변은재
	7/19: ①부-김태현	②부-김병주	③부-박재문	④부-남경인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7월)	7/4: 윤성식	7/11: 이배운	7/18: 유형석	7/25: 이기호
강단꽃(6,7월)	6/28: 선상균, 조 궁	7/5: 김인권	7/12: 조 룰	7/19: 조형미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강민(임상병리), 간호사-김현옥 다음주 | 의사-최진선(내분비 내과), 간호사-박규희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석(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1-4부 예배는 문대원 목사님(대구 동신교회 담임)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 13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위한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및 야훼/유영/나팔/Summit/이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나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방법: 6월 1일(월)-30일(화), 장학생 모집 홈페이지(scholarship.bkc.org)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scholarship@bkc.org,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제 10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불확실성의 시대를 조명하다"를 주제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편 36:9)라는 말씀 아래 제10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통찰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알찬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특별순서, 식사와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와 배움이 가득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사: 노진준 목사 (순회설교자, Preaching Coaching Ministry) 박성일 목사 (기쁨의 교회 담임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겸임교수) 정갑신 목사 (예수향남교회 담임목사)

일정: - 7월 31일(금) 저녁 7시 30분 "불확실한 자아"(노진준 목사) - 8월 1일(토) 오전 6시 "불확실한 가정"(박성일 목사), "불확실한 관계"(정갑신 목사) 토요 패널토의: 김한오 목사 인도, 3명 강사 패널리스트 - 8월 2일(주일) 1부 "불확실한 교회"(노진준 목사), 2부 "불확실한 세상"(박성일 목사), 3부 "불확실한 미래"(정갑신 목사)

◆ BYM "Harvest Crusade" 등록 BYM 학생들을 남가주 최대 규모의 복음 집회인 Harvest Crusade에 초대합니다. 올해 집회에는 Phil Wickham, Kari Jobe & Cody Carnes, Michael W. Smith 가 함께하며, 찬양과 말씀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VIP 좌석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모임 장소: 7월 11일(토) 오후 3-10시, 베델교회 체육관에서 집합(단체 이동) 등록: QR 코드

◆ Promise of Purity 예비 등록 POP를 통해 자녀들과 부모님이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결의 아름다움을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비 등록은 6월 30일(화)에 마감 됩니다. 대상등록/문의: 현재 4-6학년, QR 코드, 위우정 집사 (714) 423-4813

◆ 소망부 VBS 봉사자 모집 올 여름 소망부 VBS를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 7월 21일(화)-24일(금) 오전 9시-오후 3시 신청: QR 코드 문의: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건강검진 안내 베델교회 성도를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방문 시 편리하게 상담·예약하실 수 있으며, 검진 후 치료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hnm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접수 간호사를 통해 한국어로 상담 및 예약 진행) - 5-6월 가정의 달과 9-10월 추석 기간 동안은 검진비가 30% 할인되며 그 외 기간은 10%가 할인 됩니다.(추가검사 제외) 문의: (서울)02-440-6000(ARS 4번), ykpark@khnmc.or.kr

◆ 큐티인 7월호 판매 QTin 7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으로 풍성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정기 제직회 7월 18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정기 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 교역자 동정 - B&B 사역으로 섬겨주신 이란혜 전도사가 오늘 주일(28일)부로 은퇴합니다. - 주성필 목사가 팔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이임하여 오늘 주일(28일)부로 사임합니다.

◆ 기도해주세요 - 몽골 단기선교가 6월 28일(주일)-7월 7일(화), BYM Holos 캄보디아2 단기 선교가 7월 2일(목)-10일(금)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파송합니다. - 베델그레이스교회(BGC)에서 필리핀으로 단기선교가 6월 28일(주일)-7월 10일(금)에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김지수/김지혜 성도 가정에 딸 Eliana가 지난 21일(주일)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백창혁 집사님(백신정 집사의 부친, 이준형 집사의 장인)께서 지난 6월 21일(주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Includes details for AWANA, Sparks, Truth&Training, BYM, CIM, and church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Christian Norms Are Personal

Psalms 119:1–8

Francis Collins, who led the Human Genome Project, was originally an atheist but came to believe in God the Creator while studying the sheer complexity of the human body. Collins confessed: "Selfless altruism presents a major challenge for the evolutionist. If we closely examine the inner voice we call conscience, the motivation to practice such love is embedded within our hearts—no matter how much we try to ignore it."

Postmodern society is an era that has lost absolute norms and standards. Much like the period of the Judges, when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modern people judge and act according to their own individual standards. They cry out, "I will live by my own standards, so please don't force yours on me," but without absolute, shared standards, this society will inevitably fall into a state of anomie (lawlessness).

1. What would happen if the standard of right and wrong vanished from this society? Realistically, what would it look like to play a game that has absolutely no rules?

2. The Word of God is the sole norm for faith and life. For fallen human beings to make right decisions, we need a standard that never changes. The Bible declares that those who walk in the law of the Lord are blessed. What are some of the blessings and benefits that come from walking in His law? If someone never learns to submit to norms and authority, what kind of outcome will they face? (Ps 119:1, 6–7)

3. God has given us two kinds of norms. The first is the norm written on the heart (General Revelation), and the second is the norm written in the Word (Special Revelation). Originally, humanity could discern God's will through reason and conscience, but due to sin and the Fall, humans distorted general revelation and fell into falsehood and corruption. How can humanity, having strayed from God's will, come to know His norms? (Ps 119:105, 2 Tim 3:16–17)

4. Christian norms are personal. Christians do not blindly follow a set of rigid, cold legal codes; rather, we believe in the personal God who gave those laws. How does viewing the ultimate norm merely as legalistic rules differ from viewing it as an actual lifestyle? (2 Co 3:6–8, Ro 12:1–2)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I could not do without Thee (Hymn 415), To be pleasing you